

# 2016년 11월 시청자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

일시 : 2016.11.25(금) 14:00~15:30

## ■ 주요 회의 내용

### ▲ 언론의 역할, 보도의 가치 제고해야

- 최순실 사태 관련 내용에서 공영방송은 존재감을 상실하고 종편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연합뉴스TV에서는 중간적이었던 것 같음. 보도전문채널로서 조금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음(이재경 위원)
- 모든 언론매체가 한 가지 이슈에 집중되어 있을 때 연합뉴스TV에서만이라도 다양한 소재의 뉴스를 다뤄준다면 정체성이 분명해지지 않을까 함(이재경 위원)
- 종편의 패널들의 대담 내용은 보도의 본질적인 책임과 거리가 먼 방향으로 하고 싶은 말을 마구 내뱉고 있음. 연합뉴스TV에서는 보도의 가치가 있는 내용만 선별해서 뉴스의 방향을 제시하고 중요한 이슈를 정리해서 보도해주길 바람(이태식 위원장)

### ▲ 화면구성 및 자막 개선필요

- 총리 관련 보도의 자료화면은 매번 해외출장 갈 때의 공항사진만 계속 반복되어 나오고 있음. 다른 자료 화면으로 변화를 주면 좋을 것(이태식 위원장)
- 뉴스와 방송 사이에 자연과 관련된 영상을 보여준다면 시청자들에게 심적인 안정과 평온을 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이태식 위원장)
- 화면구성과 관련하여, 메인 뉴스 내용과 함께 하단에 큰 글씨로 Key words 뉴스 제공, 이와는 별개로 하단에 흐르는 뉴스 제공, 또 좌상단에 메인뉴스와는 별개로 key words 뉴스 등 3가지 다른 뉴스를 동시에 내보내는 방식에 대하여 시청자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등 장단점 분석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함(김상선 위원)
- 11월 14일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철회가 결정된 사실을 보도된 이후 다음시간 뉴스에서도 여전히 하단의 흐르는 뉴스 자막으로 "내일 영수회담 개최 예정" 내용이 계속 제공되어 아쉬웠음(김상선 위원)
- 임자 없이 참모 경질 처음 이라는 자막에서는 '임자 없이'가 아니라 '후임자 없이'의 후자가 빠졌음(이태식 위원장)
- 11월 2일 오전 10시 뉴스 시간 첫 머리에 방금 끝난 코리안 시리즈를 매우 빠르게 보도한 점이 좋았음. 하지만 4경기 실점이 1점이라면서 최소 실점이라고 자막 처리까지 되었는데 실은 타임스가 보도 직전 9회 말 홈런으로 실점이 2로 되었던 것은 반영되지 못한 채 잘못된 자막이 나가게 된 것은 옥의티였음(김용직 위원)

### ▲ 프로그램 편성 및 제작 기획의견

- 트렌드, 지금 여기 프로그램은 재미와 유익성을 갖춰 청소년들에게 권하고 싶은데 주말 낮 시간대에 재방송을 해줬으면 함(박동민 위원)
- 트럼프시대를 맞아 미국의 외교경제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임. 연합뉴스의 해외특파원을 활용하여 트럼프 자문단의 발언이나 동향 등 미국 소식을 자주 전해주면 좋겠음(박동민 위원)
- 최근 사태에 대해 연합뉴스TV가 의혹보다는 팩트 위주로 보도하는 건 바람직함. 그러나 시청자들의 의혹을 풀어줄 필요도 있으므로 한시적으로 전문가 초대 프로그램을 늘릴 필요가 있음(박동민 위원)
- 해외 대선 관련 이슈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부 각 부처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내용을 다뤄보았으면 함, 아침뉴스로 간밤에 있었던 해외의 중요한 뉴스를 정리해서 다뤄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함(이태식 위원장)
- 최근 이슈의 핵심에 있는 여성 인물에 대해 SNS에서는 여성비하성 의견이 많으므로 여성에 대한 혐오적인 경향에 대해 정제된 언어로 쓸 수 있도록 집어줄 수 있었으면 함(정현주 위원)
- 일요일 아침 지상파에서 세계특파원들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신선하고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듦. 연합뉴스야 말로 해외 특파원과 국내 네트워크가 많으니 각 지역 이슈를 알리는 프로그램을 편성해보면 어떨까 함(김용직 위원)
- 미국 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당선 수락연설을 발 빠르게 생중계한 것은 매우 적절하고 기동성 있는 조치였다고 생각함. 다만 30여분 이상 계속된 수락연설 내용을 동시통역서비스로 제공하지 않고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그것도 약간 늦은 속도로 자막으로 처리한 점이 아쉬웠음. 향후 이런 기회가 있을 경우에는 동시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김상선 위원)

### ▲ 아나운서, 리포터 교육훈련 필요

- 연합뉴스TV의 앵커는 남녀 모두 젊은 층임. 앵커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외국 뉴스의 경우처럼 앵커 아나운서가 프로그램 시작전에 사진의 이름을 밝히고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봄(이태식 위원장)
- 한 이슈에 대한 내용을 한 진행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맡아서 진행해주면 좋을 것. 자막을 읽는 듯 한 모습과 눈빛 표정도 매우 어색함(이태식 위원장)
- 앵커의 표정과 머리모양을 보면 남성앵커가 여성앵커보다 젊어 보임. 특히 남성앵커의 머리모양이 매우 개성 있는 모습인데 반해 여성앵커의 머리모양은 고전적인 모습임. 복장과 표정을 통해서도 간접적인 소통이 되므로 시청자에게 보도

- 의 가치가 저하되지 않도록 서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음(이태식 위원장)
- 경륜과 무게감 있는 앵커가 뉴스 진행 필요함. 보도 전문 채널인 연합뉴스 TV가 신생 방송사의 한계로 뉴스 진행자가 경륜이 일천하여 타 방송사에 비해 뉴스 신뢰도나 전달력이 부족함. 내부의 경륜 있는 뉴스 진행자를 발굴하거나 내부 책임자 없으면 외부에서라도 저명한 뉴스 진행자를 영입하면 좋을 것(신현택 부위원장)
- 앵커들에 대한 프로그램에서 힘을 실어 주는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함. 예를 들어 앵커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지 않고 있어 시청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려움. 젊은 앵커들이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름 자막이라던지 프로그램의 개편 등을 통해 앵커의 이름을 소개 해주면 좋을 것(박정숙 위원)
- 뉴스의 성격에 따라 차분히 보도해야 할 기사도 있겠지만 충격적인 팩트를 전달할 때도 차분하게 보도하는 경우가 잦음. 기자들이 긴장감 있게 목소리 톤을 높이는 게 뉴스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음. 연합뉴스TV가 균형 있는 보도를 중시 여기지만 앵커의 표정과 말투도 지금보다 더 생동감 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음(박동민 위원)
- 리포터의 발음 중 내일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지겠는데요. 라는 멘트에서 '지겠는데요. 에 강조를 하는 어투로 날씨를 전달했음. 발성과 어투에 대해 교육이 필요함(이태식 위원장)

#### ▲ 긍정적 평가

- 최근 사태에 집중되어 있는 언론과 달리 연합뉴스TV의 타 매체를 따라가지 않고 비교적 종합적인 보도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임(이태식 위원장)
- 일기예보 시에 시간별 지역별 날씨예보와 함께 '빨래지수, 자외선 지수, 운동지수, 불조심 지수, 세차지수' 등 다양한 지수를 자막으로 서비스하는 것이 돋보였으며 앞으로 이를 잘 발전시켜 나가면 의미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이태식 위원장)
- 뉴스는 시의성도 중요하지만, 정확성도 중요하고 중용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인데 연합뉴스TV는 최근 시국 상황에서 중심을 지켜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식의 보도는 자제하는 것 같음(김용직 위원)
- 트럼프 대선 생중계를 시시각각으로 다뤄준 점이 좋았음. 선거 다음날 국제정세와 한국과의 관계 등을 대담형식으로 준비한 프로그램은 매우 좋게 평가함. 트럼프 개인에 초점이 맞춰진 여러 뉴스들 중에서도 연합뉴스TV에서는 우리나라가 대처해야 할 점에 대해 다뤄주어 유익했음(박정숙 위원)
- 최순실 사태 관련 뉴스에 모든 매체가 집중되고 있지만 타 방송사에 비해 사적이고 가십적인 내용이 빠진 내용으로 다뤄주어 정리해서 듣기에 좋았음(박정숙 위원)

- . (끝)